

기혼여성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이 인 숙(극동정보대학 간호과)
문 정 순(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목 차

I. 서론	V. 논의
II. 문헌고찰	VI.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연구결과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부부중심 가족은 과거와는 달리 부부간의 애정과 친밀성이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부부간의 애정은 부부간의 상호이해와 성관계의 조화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부의 성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높아졌다. 과거에는 부부의 역할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여가선용, 성격의 부조화, 성적 부조화, 흥미의 차이, 가정경제 등이 부부간의 적응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문혜숙, 1993).

이근후(1997)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56%가 의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없었던 문제가 새롭게 발생되었다기 보다는 은폐되었던 성문제가 표면화된 것으로 과거에는 결혼 내에서 부부간의 성생활이 생식 중심이었을 뿐 부부간의

상호충족의 관점이 아니었던 반면(윤가현, 1993) 오늘날에는 부부상호간의 성만족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부부간에 친밀감이나 의사소통이 부족한 데에서 초래된 성적 부조화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인간의 성에 대한 인지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과 같이 태어난 직후부터 생활의 일부가 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을 생각하고, 원하고, 실행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한 일이며 결코 어색하거나 쑥스럽거나 더군다나 창피한 것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성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목적이기도 하며 우리가 살아 있는 한 결코 버려서는 안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김원희, 1995).

유교문화권의 우리나라는 부부간의 성문제에 관한 언급 그 자체를 기피하거나 실제로 부부갈등의 원인이 성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게 표면화하는 것을 불미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내부적으로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성적 문제야말로 부부관계 및 여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성적 만족감은 자아

실현과 관련이 깊고(Maslow 1954; Frankl 1978; Peterson et al. 1989), 개인의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며 성상대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이다.

인간이 성생활에 잘 적응하여 성적 만족을 느끼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관련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작업활동 상태 등과 배우자 지지, 신체상, 성태도, 정서상태 및 성적행위 등이 성생활 관련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할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성태도는 개인의 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 가치관 및 성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ecloski, 1976). 또한 성태도는 성생활과 관련되어 일단 형성되면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Derogatis, 1980), 성태도에 따라 성생활 만족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였다(Rubin, 1965).

실제로 건강관리 상황에서 여성들은 신체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성적인 갈등이나 불만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금기나 수치감 혹은 의료인들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하여 성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장순복 등, 1998).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성적 문제를 가장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또한 포괄적이면서 여성들로 하여금 침해받는 느낌없이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간호사이다(Zawid, 1994). 따라서 간호사들은 여성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만족스런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성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성지식 : 여성 생식기의 해부, 생리, 성반응, 성심리, 부인암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20개 문항 점수의 합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성태도 : 성관계의 가치, 성적 절정감의 가치, 성생활에 대한 대처, 성행위의 다양성, 성상담의 필요성, 노인의 성생활, 성적 자극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22개 문항 점수의 합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3) 성생활 만족 : 부부간의 성관계에서 성행위에 대해 갖는 여성의 주관적 만족감으로서 12개 문항 점수의 합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성

성(Sexuality)은 19세기 이후에 일반화된 용어로 섹스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성적 존재의 특질 혹은 상태로 섹스의 필수요건, 남성과 여성의 연합에 의해 나타나는 생식적 기능상태, 성본능(sex instinct)의 표현, 성활동과 관련된 유기체의 잠정적, 혹은 준비상태를 의미한다(Webster's dictionary, 1988).

성은 발달주기별 성적체성 구축과 자아수용의 주요 부분으로(Sutterley & Donellys, 1973) 인간의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능력과 가치를 포함하며, 여성의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오는 관념, 정서, 행동의 통합이다(Otto, 1971; Stephens, 1970).

성은 욕망, 만족감, 환상, 의사소통에 대한 능력으로 사회의 성 규범 속에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

인 산물이다(McKay & Gorden, 1992). 또한 성은 연령, 문화, 종교, 개인적 경험, 신화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Yates, 1987) 생물학적 생식능력, 신체상, 성적 특성, 성역할 인식과정, 정체성, 성적상호관계, 성적자아 개념이 성격형에 의해 영향받고 구성된다(Thomas, 1989; Weeks, 1985).

성은 그 목적이 생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표현으로서, 또는 정욕이나 성적 긴장의 해소를 위하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김원희, 1995) 다차원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생리, 심리, 사회적 측면을 지니고 있어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크다(White & Remay, 1982).

성은 사랑, 따뜻함, 공유, 사람들간의 접촉으로 단지 신체적 교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접촉은 가까움, 친밀감, 성의 외형적 표현이고, 성의 통합된 부분으로서 정서, 태도, 관계형성의 정신·사회적 측면이 포함되어 성의 본질이 형성된다고 하였다(Ebersole & Hess, 1994). 남녀의 성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친밀감을 나누고, 정직한 의사소통과 흥미있는 대화, 양자의 특성을 수용하고, 성적인 충만감을 느낄 때에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된다(Gordon & Craig, 1986).

특히 결혼한 부부관계에서 성욕구의 충족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성적인 욕구가 생존적 욕구라기 보다는 생리적 욕구가 동반된 부부 관계적 욕구로서 결혼유지 기능의 의미가 강조되기 때문이다(장순복, 1996). 또한 부부간에 성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하며 수용할 뿐만 아니라 상호수용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자아가 존중됨으로써 자부심이 향상되기 때문이다(익나스 램, 1991).

따라서 인간의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은 성적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뿐아니라, 성숙한 인간이 보다 만족스럽고 책임감 있는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Levine, 1976; Master et al., 1985).

2. 성생활

성생활은 생물학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에게 있어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내적 요인인 정체감에 의해 좌우되며 개인적 삶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생활은 두 사람간의 감정적, 인격적 표현이며 서로간의 사랑, 존경, 관심과 인간성 및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상호작용하며 계속 성장, 발전되어 간다(유영주, 1984). 전통사회에서 성생활은 결혼과 함께 시작되며 결혼관계에서 성생활은 핵심 요소이고 부부간의 중요한 관심사로서 결혼의 결속을 강화시킨다(Duvall, 1977; 정동철, 1985).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중기 유교사상이 온 국민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성의 성은 남성을 위한 전유물로 타락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칠거지악(七去之惡)에서 보듯이 여성이 섹스를 좋아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정도로 여성의 성적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였다(김원희, 1995). 남성들과는 다르게 여성들은 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어색해하고 불안해하며 도덕적 죄인이 된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때로는 오해받을 것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기도 한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부끄러워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남편으로부터 정숙치 못한 여성으로 오해받을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신들을 억압한 채 살아가고 있다(서현숙, 1992).

부부간의 성생활은 관습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감정이 없을 때에도 성관계를 하지만 성을 통하여 부부들은 일체감, 상호 감사, 긴장 완화, 사랑의 표현, 합의, 기분 전환 등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가 계속 발전되고 성숙되어 가는 통로가 된다(문혜숙, 1993). 그러므로 성생활은 생식목적이나 즐거움 이외에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므로 성행위와 관련된 성만족은 개인의 안녕상태와 직결된다(Allgeier & Allgeier, 1988; McCann & Biaggio, 1989).

Frank 등(1986)은 성생활 만족이란 신체적 자극과 심리적 자극사이의 함수의 결과라고 설명하였고 Hite(1976)는 여성의 성생활 만족은 "정서적인 친밀감, 부드러움, 밀착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이라고 하였으며 Bell 과 Bell(1972)은 성행위에

서 상대방과의 친밀성, 하나됨을 느끼는 것을 성생활 만족이라고 하였다. Landis(1975)에 의하면 성생활 만족의 상대란 성교횟수나 성행위의 빈도라기 보다는 부부간에 서로의 욕구가 잘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하였다. Hunt(1974)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감정적으로 친밀한 경우에 더욱 만족스러우며 특히 부인의 성만족과 감정적 친밀감에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Putton과 Waring(1985)은 부부간의 친밀감과 성생활 관계를 연구한 결과 결혼생활에서 성생활과 친밀감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함으로써 배우자간의 친밀성이나 지지가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로써(Cobb, 1976) 성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Derogatis와 Melisaratos(1979)는 꽤 정서의 상태에 있으면 성생활의 만족을 경험하고 불쾌 정서 상태에 있으면 성적으로 불만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남성의 성기능이 사정 중심이고 정서상태와는 별개인 데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에는 좋은 감정상태가 아니면 성관계를 갖고 싶어하지 않으며 정상 성반응을 통한 만족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결과(Carroll, 1985; McCarthy, 1987)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성적 만족에 정서상태가 더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양희란(1993)은 우리나라의 부부들은 성적 불만족의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편이지만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부부들의 경우 상호간에 성적 만족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성적으로 만족하는 부부의 경우 남편이 주로 성관계 의사를 표현하지만 서로가 성관계를 상호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성만족은 배우자의 지지나 성교 빈도보다는 개방적인 성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Cole(1975)은 만족스런 성생활이야말로 자아성취 및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신체적 문제들을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성생활 만족여부는 여성 자신은 물론 가족,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관련되는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문홍세(1989)는 부부간에 공동체함을 나눌 수 없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자율적이지 못할 때에 성적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고 하였다. Kaplan(1974)은 10여년간의 임상적 연구에서 여성의 성기능장애 빈도는 남성에 비해 별 차이가 없으나 절정기

장애가 가장 흔하면서 심각한 장애라고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개방 풍조와 더불어 성에 관한 의학적,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더우기 기혼여성의 성기능장애나 성적 불만으로 치료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정동철, 1985; 이홍식, 1986; 이홍식 등, 1986). 이홍식(1987)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혼부부의 성기능장애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데 여성들은 성적 흥분이나 각성이 억제된 범성장애보다는 성적 흥분은 잘 되지만 절정감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인 절정감 장애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흥분은 되지만 절정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는 생리적이거나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결혼생활 자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인으로 성생활의 즐거움을 모르거나, 부부의 친밀감 부족, 임신의 두려움, 부부 상호 동의 안됨, 남편이 성관계 분위기 조성 못함, 성생활 기본 지식의 부족,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이었다. 또한 부인과적 증상이나 수술과 질환으로 인한 증상(Udeenberg, 1974; Rice, 1984), 스트레스 상황(Suthrust, 1979), 우울증상(Hallstrom, 1977)은 여성의 성기능 및 성만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즉, 만족스런 성생활은 배우자와의 원만한 관계없이 얻어지기 어려우며 상대가 성을 즐기지 못하거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안다면 여성 자신도 성적인 만족을 얻기는 어렵다(김원희, 1995). 그리고 부부간에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주게 되므로 서로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 즐겁다고 느끼는 것, 즐겁지 않은 것 등을 상대방에게 말해 주는 것이 성생활에 매우 유용하며 상호간의 성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장순복, 1996).

따라서 앞으로 성생활 만족은 여성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건강관리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며 여성의 성에 관한 문제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주관적 성만족도를 다각적으로 측정하여 성생활과 관련된 변수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과 충청도에 위치한 1개 전문대학 여학생들의 어머니들 가운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허락한 2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67문항으로 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3문항, 성지식 20문항, 성태도 22문항, 성생활 만족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지식, 성태도 도구는 선행 연구(장순복, 1989; 구자성, 1997)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간호학 교수 3인과 산부인과 수간호사 2인의 자문을 받아 문항내용 및 문장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내용타당도를 높였다. 각 문항에 있어 성에 대한 지식의 경우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 처리하였고 총점은 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성태도는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성태도의 총점은 88점으로 역문항의 경우 역환산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각 도구의 신뢰도는 성지식 Cronbach $\alpha = .667$, 성태도 Cronbach $\alpha = .864$ 이었다. 성생활 만족 도구는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1979)를 장순복(1989)이 번역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성한 성생활 만족 10

문항과 김숙남 등(1997)이 우리나라 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이 만든 성만족 17문항을 참고하여 이 가운데 12문항을 발제한 뒤 일차로 작성된 도구를 간호학 교수 3명과 산부인과 수간호사 2인의 자문을 받아 문항내용 및 문장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내용타당도를 높였다. 각 문항에 있어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하였고 총점은 48점으로 역문항의 경우는 역환산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8$ 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 수집기간은 2000년 3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반송봉투와 함께 배부한 뒤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500부 중 246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49.2%였고, 이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한 228부(45.6%)를 최종분석 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은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를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수는 총 228명으로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2.1세였다. 배우자의 연령 또한 40대가 36.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5.3세였다. 결혼기간은 21년 이상이 33.3%였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6.3년이였다. 자녀수는 1-2명이 76.8%로 가장 많았고 평균 1.9명이였다. 대상자와 배우자의 학력은 대학졸업자가 각각 48.7%, 55.5%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대상자와 배우자 모두 기독교가 가장 많아 각각 36.8%, 28.2%였으며 여성의 직업은 61.8%가 전업주부였다.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 34.6%였고 경제수준은 80.7%가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월경을 하는 여성은 77.8%였고 성정보를 획득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73.3%였다(표 1참조).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실수(%)
본인연령	20-29세	19(8.3)
	30-39세	66(28.9)
	40-49세	92(40.4)
	50-59세	46(20.2)
	60세이상	5 (2. 2)
남편연령	20-29세	7 (3.1)
	30-39세	60(26.5)
	40-49세	82(36.3)
	50-59세	59(26.1)
	60세이상	18(8.0)
결혼기간	5년이하	29(12.7)
	6-10년	38(16.7)
	11-15년	41(18.0)
	16-20년	44(19.3)
	21년이상	76(33.3)
자녀수	없음	15(6.6)
	1-2명	175(76.8)
	3명이상	38(16.7)

본인학력	초등학교졸업	2(0.9)	
	중학교졸업	14(6.1)	
	고등학교졸업	91(39.9)	
	대학졸업	111(48.7)	
	대학원졸업	10(4.4)	
배우자 학력	초등학교졸업	3(1.3)	
	중학교졸업	2(0.9)	
	고등학교졸업	52(22.9)	
	대학졸업	126(55.5)	
	대학원졸업	44(19.4)	
본인종교	종교없음	54(23.7)	
	기독교	84(36.8)	
	천주교	44(19.3)	
	불교	44(19.3)	
	기타	2(0.9)	
남편종교	종교없음	94(41.4)	
	기독교	64(28.2)	
	천주교	28(12.3)	
	불교	38(16.7)	
	기타	3(1.3)	
본인직업	주부	141(61.8)	
	회사원	22(9.6)	
	교사	30(13.2)	
	공무원	5(2.2)	
	사업	16(7.0)	
남편직업	없음	17(7.5)	
	회사원	79(34.6)	
	교사	18(7.9)	
	공무원	19(8.3)	
	은행원	4(1.8)	
경제수준	상	7(3.1)	
	중	184(80.7)	
	하	37(16.2)	
	월경	유	175(77.8)
		무	50(22.2)
성정보 획득경험	예	165(73.3)	
	아니오	60(26.7)	

2. 대상자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1) 대상자들의 성지식

정동철, 1985: 대상자들의 성지식 점수는 20점 만점에 평균 13.76(범위 5-20), 표준편차 3.01였다. 문항별로 볼 때 '여성도 남성과 같이 성관계를 갖고 싶어한다' 라는 문항이 0.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부인과 암은 규칙적인 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질 분비물이 없으면 성교시 통증이 있다', '여성의 음핵(생식기 윗부분)은 성적 자극에 특별히 민감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자궁이 없으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한다'로서 0.34점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자궁이 없으면 여성의 성욕은 감소한다', '자궁이 없으면 여성 호르몬은 분비되지 않는다', '난소가 없으면 질이 건조하게 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들의 성지식

문 항	정 답	오 답	Mean±SD
	실수(%)	실수(%)	
• 난소는 자궁 양측으로 1개씩 있다.	205(89.9)	23(10.1)	0.90±0.30
• 난소가 없으면 질이 건조하게 된다.	106(46.5)	122(53.5)	0.46±0.50
• 여성호르몬에 의하여 질 분비물이 분비된다.	189(82.9)	39(17.1)	0.83±0.38
• 한쪽 난소만 있어도 여성호르몬은 분비된다.	200(87.7)	26(12.3)	0.88±0.33
* 자궁이 없으면 여성호르몬은 분비되지 않는다.	103(45.2)	125(54.8)	0.45±0.50
* 자궁이 없으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한다.	78(34.2)	150(65.8)	0.34±0.48
• 질분비물이 없으면 성교시 통증이 있다.	209(91.7)	19(8.3)	0.92±0.28
• 자궁이 없는 여성도 성교전 애무에 의해 질분비물이 자극된다.	115(50.4)	113(49.6)	0.50±0.50
* 자궁과 질은 같은 기관이다.	139(61.0)	89(39.0)	0.61±0.49
• 성관계는 질에서 이루어진다.	177(77.6)	51(22.4)	0.78±0.42
* 자궁이 없으면 성관계를 할 수 없다.	182(79.8)	46(20.2)	0.80±0.40
* 자궁이 없으면 여성의 성욕은 감소된다.	94(41.2)	134(58.8)	0.41±0.49
* 자궁이 없으면 여성은 성적 절정감을 느낄 수 없다.	112(49.1)	116(50.9)	0.49±0.50
• 자궁수술후 성생활은 4-6주후부터 가능하다.	114(50.0)	114(50.0)	0.50±0.50
* 자궁암은 성관계를 통해 남편에게 전해진다.	193(84.6)	35(15.4)	0.85±0.36
* 자궁암은 잘못된 성관계의 결과이다.	156(68.4)	72(31.6)	0.68±0.47
• 부인과 암은 규칙적인 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214(93.9)	14(6.1)	0.94±0.24
• 여성도 남성과 같이 성관계를 갖고 싶어한다.	221(96.9)	7(3.1)	0.97±0.17
• 여성의 음핵(생식기 윗부분)은 성적 자극에 특별히 민감하다.	204(89.5)	24(10.5)	0.89±0.31
* 성관계 횟수가 많을수록 부부관계가 좋은 것이다.	127(55.9)	100(44.1)	0.56±0.50

평균 13.76±3.01
범위 5-20

* 역환산된 문항

다, '부부간에 성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성관계는 남편이 주도하여야 한다', '부부간에 성적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성생활을 위하여 성관계에 도움이 되는 성기구를 사용

할 수 있다'였고 그 다음이 '성생활을 위하여 비아그라와 같은 성치료제를 먹을 수 있다', '성생활을 위하여 이쁜이 수술을 할 수 있다', '성관계는 사랑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남편과 성생활을 하는 여성도 자위행위를 할 수 있다'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표 3〉 대상자들의 성태도

문항	그렇지	약간	대체로	매우	Mean±SD
	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실수(%)	실수(%)	실수(%)	실수(%)	
• 부부간의 성관계는 신성한 것이다.	3(1.3)	13(5.7)	75(32.9)	137(60.1)	3.52±0.67
• 성관계는 결혼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3(1.3)	17(7.5)	87(38.2)	121(53.1)	3.43±0.69
• 성관계는 부부 상호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6(2.6)	21(9.2)	74(32.5)	127(55.7)	3.41±0.77
*. 성관계는 남편이 주도하여야 한다.	18(7.9)	55(24.1)	64(28.1)	91(39.9)	3.00±0.97
• 성관계는 사랑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106(46.5)	64(28.1)	41(18.0)	17(7.5)	1.86±0.96
• 성관계에 있어 성적 절정감(오르기짐)은 중요하다.	12(5.3)	35(15.4)	97(42.5)	84(36.8)	3.11±0.85
• 성생활을 위하여 비아그라와 같은 성치료제를 먹을 수 있다.	128(56.1)	57(25.0)	31(13.6)	12(5.3)	1.68±0.89
• 성생활을 위하여 이쁜이 수술을 할 수 있다.	113(49.6)	68(29.8)	34(14.9)	13(5.7)	1.77±0.91
• 성생활을 위하여 성관계에 도움이 되는 성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130(57.0)	68(29.8)	25(11.0)	5(2.2)	1.58±0.77
• 질분비물이 부족할 경우 질 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다.	70(30.7)	92(40.4)	53(23.2)	13(5.7)	2.04±0.88
• 성생활을 위하여 성지식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0(8.8)	96(42.1)	85(37.3)	27(11.8)	2.52±0.82
• 성에 관한 영화나 잡지를 보는 것은 성욕을 자극한다.	28(12.3)	88(38.6)	91(39.9)	21(9.2)	2.46±0.83
• 성생활을 위하여 치장(옷차림, 화장, 향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47(20.6)	79(34.6)	75(32.9)	27(11.8)	2.36±0.94
• 성관계전의 포옹이나 애무는 성관계의 즐거움을 위하여 필요하다.	2(0.9)	26(11.4)	100(43.9)	100(43.9)	3.31±0.70
• 부부간에 성감대나 성기를 만져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5(2.2)	32(14.0)	99(43.4)	92(40.4)	3.22±0.77
• 성경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성 체위(자세)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20(8.8)	75(32.9)	84(36.8)	49(21.5)	2.71±0.90
• 부부간에 성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8(3.5)	53(23.2)	85(37.3)	82(36.0)	3.06±0.86
• 부부간에 성적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21(9.2)	51(22.4)	89(39.0)	67(29.4)	2.89±0.94
• 노인들에게도 성관계는 결혼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33(14.5)	68(29.8)	90(39.5)	37(16.2)	2.57±0.93
• 우리나라는 성에 관한 지식을 개방해야 한다.	30(13.2)	67(29.4)	94(41.2)	37(16.2)	2.61±0.91
• 남편과 성생활을 하는 여성도 자위행위를 할 수 있다.	82(36.0)	84(36.8)	57(25.0)	5(2.2)	1.93±0.83
• 구강성교(성기와 입을 이용한 성교)는 부부간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56(24.6)	66(28.9)	80(35.1)	26(11.4)	2.33±0.97

평균 57.28±9064
범위 31-85

3) 대상자들의 성생활 만족

대상자들의 성생활 만족 점수는 48점 만점에 평균 33.15(17-48), 표준편차 6.54였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성교시 통증이 있다' 라는 문항의 경우 응답 내용을 역환산 했을 때 3.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성생활 만족에 관한 문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 다음이 '남편을 성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는지 염려스럽다', '남편과의 성교시 부부간의 친밀감을 느낀다', '남편은 나의 성적 요구를 들어준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성에 관해 흥미가 있다'였고 다음이 '남편과 함께 성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한다', '남편과의 성교횟수는 충분하다', '남편은 나의 성적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자녀수가 1-2명인 경우(p=.005), 여성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p=.001), 남편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p=.008), 여성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p=.04)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성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연령이 40대인 경우, 남편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결혼기간이 6-10년인 경우, 기독교를 믿는 경우, 남편의 직업이 교사인 경우,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월경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성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성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참조).

〈표 4〉 대상자들의 성생활 만족

문 항	그렇지 않 다 실수(%)	약 간 그렇다 실수(%)	대체로 그렇다 실수(%)	매 우 그렇다 실수(%)	Mean±SD
• 남편은 나의 성적요구를 들어준다.	15(6.6)	50(21.9)	122(53.5)	41(18.0)	2.83±0.80
• 남편은 나의 성적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32(14.0)	51(22.4)	107(46.9)	38(16.7)	2.66±0.92
• 남편과의 성교횟수는 충분하다.	37(16.2)	49(21.5)	98(43.0)	44(19.3)	2.65±0.97
• 남편과의 성교시간이 충분하다.	30(13.2)	54(23.7)	95(41.7)	49(21.5)	2.71±0.94
• 남편과의 성교시 부부간의 친밀감을 느낀다.	14(6.1)	51(22.4)	108(47.4)	55(24.1)	2.89±0.84
• 남편의 애무는 나를 흥분시킨다.	27(11.8)	46(20.2)	109(47.8)	46(20.2)	2.76±0.91
• 남편과의 성교시 질정감을 느낀다.	28(12.3)	55(24.1)	99(43.4)	46(20.2)	2.71±0.93
• 남편과의 성관계에 만족한다.	22(9.6)	44(19.3)	116(50.9)	46(20.2)	2.82±0.87
* • 남편을 성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는지 염려스럽다.	10(4.4)	50(21.9)	109(47.8)	59(25.9)	2.95±0.81
• 남편과 함께 성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한다.	41(18.0)	64(28.1)	87(38.2)	36(15.8)	2.52±0.96
* • 성교시 통증이 있다.	133(58.3)	71(31.1)	21(9.2)	3 (1.3)	3.47±0.72
• 성에 관해 흥미가 있다.	47(20.6)	108(47.4)	57(25.0)	16(7.0)	2.18±0.84
				평균	33.15±6.54
				범위	47-48

* 역환산된 문항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특 성	구 분	실수(%)	mean (SD)	t or F	p-value
본인연령	20-29세	19(8.3)	13.27±2.74	2.05	0.088
	30-39세	66(28.9)	13.59±2.95		
	40-49세	92(40.4)	14.09±3.15		
	50-59세	46(20.2)	13.87±3.19		
	60세이상	5(2.2)	10.20±3.11		
남편연령	20-29세	7(3.1)	15.0(2.94)	0.78	0.539
	30-39세	60(26.5)	13.72(2.86)		
	40-49세	82(36.3)	13.70(3.15)		
	50-59세	59(26.1)	14.05(3.08)		
	60세이상	18(8.0)	12.89(3.63)		
결혼기간	5년이하	29(12.7)	13.72±2.51	0.33	0.856
	6-10년	38(16.7)	14.13±3.43		
	11-15년	41(18.0)	13.44±2.70		
	16-20년	44(19.3)	13.55±3.41		
	21년이상	76(33.3)	13.89±3.18		
자녀수	없음	15(6.6)	13.67±2.29	5.51	0.005
	1-2명	175(76.8)	14.09±3.15		
	3명이상	38(16.7)	12.29±2.70		
본인학력	초등학교졸업	2(0.9)	7.50±0.71	5.13	0.001
	중학교졸업	14(6.1)	12.50±2.31		
	고등학교졸업	91(39.9)	13.23±3.23		
	대학졸업	111(48.7)	14.48±2.80		
	대학원졸업	10(4.4)	13.70±3.68		
남편학력	초등학교졸업	3(1.3)	12.33±4.51	3.58	0.008
	중학교졸업	2(0.9)	8.50±2.12		
	고등학교졸업	52(22.9)	12.87±3.11		
	대학졸업	126(55.5)	14.10±3.05		
	대학원졸업	44(19.4)	14.30±2.73		
본인종교	종교없음	54(23.7)	13.43±3.14	1.94	0.11
	기독교	84(36.8)	14.15±2.68		
	천주교	44(19.3)	14.27±3.36		
	불교	44(19.3)	13.07±3.40		
	기타	2(0.9)	12.00±2.12		
남편종교	종교없음	94(41.4)	13.61±3.28	0.57	0.69
	기독교	64(28.2)	14.20±2.67		
	천주교	28(12.3)	13.96±3.49		
	불교	38(16.7)	13.37±3.04		
	기타	3(1.3)	14.00±2.65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계속)

특 성	구 분	실수(%)	mean (S.D)	t or F	p-value
본인직업	주부	141(61.8)	13.84±2.98	2.36	0.04
	회사원	22(9.6)	14.00±3.59		
	교사	30(13.2)	14.40±2.90		
	공무원	5(2.2)	15.60±1.67		
	사업	16(7.0)	11.69±3.61		
	기타	14(6.1)	12.93±2.76		
남편직업	무직	17(7.5)	12.94±3.54	0.98	0.44
	회사원	79(34.6)	14.20±3.11		
	교사	18(7.9)	14.44±2.62		
	공무원	19(8.3)	13.95±3.01		
	은행원	4(1.8)	14.25±1.71		
	사업	60(26.3)	13.20±3.30		
	기타	31(13.6)	13.61±2.76		
	경제수준	상	7(3.1)		
중		184(80.7)	13.88±2.99		
하		37(13.6)	13.51±3.58		
월경	유	175(77.7)	13.74±2.94	-0.83	0.41
	무	50(22.3)	14.18±3.41		
성정보 획득여부	예	165(73.3)	14.02±2.82	1.87	0.06
	아니오	60(26.7)	13.03±3.73		

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여성의 연령이 20대인 경우(p=.002), 남편의 연령이 30대인 경우(p=.000), 결혼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p=.000), 자녀가 없는 경우(p=.008), 경제수준

이 '상'인 경우(p=.04), 월경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p=.014), 성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여성(p=.000)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성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6참조).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특 성	구 분	실수(%)	mean (SD)	t or F	p-value
본인연령	20-29세	19(8.3)	61.79± 8.06	4.46	0.002
	30-39세	66(28.9)	59.70± 9.12		
	40-49세	92(40.4)	57.04± 9.81		
	50-59세	46(20.2)	53.20± 9.25		
	60세이상	5(2.2)	54.40±12.32		
남편연령	20-29세	7(3.1)	60.57(8.06)	5.70	0.000
	30-39세	60(26.5)	60.92(9.06)		
	40-49세	82(36.3)	57.78(0.79)		
	50-59세	59(26.1)	53.22(9.66)		
	60세이상	18(8.0)	54.94(11.06)		
결혼기간	5년이하	29(12.7)	62.86± 8.35	6.40	0.000
	6-10년	38(16.7)	60.79± 8.78		
	11-15년	41(18.0)	56.68± 7.76		
	16-20년	44(19.3)	57.27±10.72		
	21년이상	76(33.3)	54.00± 9.67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계속)

특 성	구 분	실수(%)	mean (SD)	t or F	p-value
자녀수	없음	15(6.6)	64.53± 7.78	4.95	0.008
	1-2명	175(76.8)	57.15± 9.39		
	3명이상	38(16.7)	55.58±10.77		
본인학력	초등학교졸업	2 (0.9)	56.00± 9.90	0.56	0.689
	중학교졸업	14(6.1)	54.07± 5.64		
	고등학교졸업	91(39.9)	57.31±10.68		
	대학졸업	111(48.7)	57.98± 9.37		
	대학원졸업	10(4.4)	56.10± 9.00		
남편학력	초등학교졸업	3 (1.3)	57.00±12.17	0.26	0.905
	중학교졸업	2 (0.9)	60.00± 4.24		
	고등학교졸업	52(22.9)	57.02± 9.43		
	대학졸업	126(55.5)	56.94± 9.71		
	대학원졸업	44(19.4)	58.48± 9.89		
본인종교	종교없음	54(23.7)	59.50± 8.33	2.38	0.05
	기독교	84(36.8)	58.27± 9.01		
	천주교	44(19.3)	55.91±11.50		
	불교	44(19.3)	54.98±10.08		
	기타	2 (0.9)	47.00± 5.66		
남편종교	종교없음	94(41.4)	58.65± 9.18	1.84	0.12
	기독교	64(28.2)	58.02± 9.57		
	천주교	28(12.3)	55.11±11.13		
	불교	38(16.7)	54.63± 9.33		
	기타	3 (1.3)	52.67± 6.66		
본인직업	주부	141(61.8)	56.32±10.23	1.07	0.38
	회사원	22(9.6)	58.59± 8.08		
	교사	30(13.2)	59.13± 7.29		
	공무원	5 (2.2)	56.60± 5.94		
	사업	16(7.0)	59.69±10.85		
	기타	14(6.1)	61.07±10.37		
남편직업	무직	17(7.5)	56.65±10.15	1.36	0.23
	회사원	79(34.6)	56.39± 9.85		
	교사	18(7.9)	58.00± 9.73		
	공무원	19(8.3)	54.53± 9.28		
	은행원	4(1.8)	52.50± 5.45		
	사업	60(26.3)	58.07±10.06		
	기타	31(13.6)	60.94± 8.54		
경제수준	상	7 (3.1)	66.14± 4.41	3.27	0.04
	중	184(80.7)	57.30± 9.35		
	하	37(16.2)	56.05±11.36		
월경	유	175(77.8)	58.10± 9.33	2.53	0.014
	무	50(22.2)	54.10±10.04		
성정보 획득여부	예	165(73.3)	59.0 ± 9.04	4.20	0.000
	아니오	60(26.7)	52.9 ± 9.88		

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 여성의 연령이 30대인 경우($p=.018$), 남편의 연령이 40대인 경우($p=.004$),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p=.000$), 월경을 하는 경우($p=.000$), 성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p=.000$)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

하여 성생활 만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기간, 자녀수, 여성 및 남편의 학력, 여성과 남편의 종교 및 직업에 따른 성생활 만족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참조).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

특성	구분	실수(%)	mean (SD)	t or F	p-value
본인연령	20-29세	19(8.3)	33.84±7.65	3.04	0.018
	30-39세	66(28.9)	34.05±5.88		
	40-49세	92(40.4)	33.62±6.30		
	50-59세	46(20.2)	31.57±6.64		
	60세이상	5(2.2)	25.40±7.77		
남편연령	20-29세	7(3.1)	33.86(7.43)	3.98	0.004
	30-39세	60(26.5)	34.30(6.37)		
	40-49세	82(36.3)	34.48(6.10)		
	50-59세	59(26.1)	31.34(6.19)		
	60세이상	18(8.0)	29.44(7.76)		
결혼기간	5년이하	29(12.7)	33.76±7.88	1.67	0.158
	6-10년	38(16.7)	34.00±5.67		
	11-15년	41(18.0)	34.24±5.12		
	16-20년	44(19.3)	33.73±6.19		
	21년이상	76(33.3)	31.62±7.05		
자녀수	없음	15(6.6)	34.00±7.07	0.90	0.409
	1-2명	175(76.8)	33.37±6.38		
	3명이상	38(16.7)	31.92±6.91		
본인학력	초등학교졸업	2(0.9)	21.50±0.71	1.77	0.135
	중학교졸업	14(6.1)	33.50±6.27		
	고등학교졸업	91(39.9)	32.92±6.78		
	대학졸업	111(48.7)	33.45±6.37		
	대학원졸업	10(4.4)	34.10±4.95		
남편학력	초등학교졸업	3 (1.3)	31.33±8.08	0.30	0.88
	중학교졸업	2 (0.9)	33.0±16.97		
	고등학교졸업	52(22.9)	33.29±6.89		
	대학졸업	126(55.5)	32.87±6.60		
	대학원졸업	44(19.4)	33.98±5.49		
본인종교	종교없음	54(23.7)	34.33±6.03	1.35	0.25
	기독교	84(36.8)	33.61±6.25		
	천주교	44(19.3)	32.32±6.97		
	불교	44(19.3)	31.66±7.05		
	기타	2 (0.9)	35.00±1.41		
남편종교	종교없음	94(41.4)	33.46±6.32	1.24	0.29
	기독교	64(28.2)	34.03±6.31		
	천주교	28(12.3)	32.36±6.67		
	불교	38(16.7)	31.95±7.15		
	기타	3 (1.3)	28.00±7.00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계속)

특성	구분	실수(%)	mean (SD)	t or F	p-value
남편직업	무직	17(7.5)	31.41±7.61	1.21	0.300
	회사원	79(34.6)	32.06±6.31		
	교사	18(7.9)	34.22±5.41		
	공무원	19(8.3)	33.42±6.43		
	은행원	4 (1.8)	33.75±3.30		
	사업	60(26.3)	33.67±6.58		
	기타	31(13.6)	35.13±6.98		
경제수준	상	7 (3.1)	41.43±3.05	7.33	0.000
	중	184(80.7)	33.20±6.42		
	하	37(16.2)	31.43±6.31		
월경	유	175(77.8)	34.09±6.29	4.40	0.000
	무	50(22.2)	29.68±6.23		
성정보 획득여부	예	165(73.3)	34.28±6.28	4.38	0.000
	아니오	60(26.7)	30.17±6.21		
본인직업	주부	141(61.8)	32.64±6.32	2.11	0.070
	회사원	22(9.6)	31.77±7.00		
	교사	30(13.2)	36.13±4.67		
	공무원	5 (2.2)	34.20±4.27		
	사업	16(7.0)	32.00±8.29		
	기타	14(6.1)	35.29±8.01		

3. 대상자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간의 상관관계

성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r=0.174, p<.01$), 성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312, p<.001$) (표 8참조).

〈표 8〉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간의 상관관계

	성태도	성생활 만족
성지식	0.174**	0.099
성태도		0.312***

** $p<.01$ *** $p<.001$

V. 논 의

성지식 문항 가운데 자궁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42.1세인 것을 생

각할 때 폐경기를 앞둔 여성들로서 여성 생식기의 기본구조와 생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연령이니 만큼 이에 관련된 지식전달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태도 문항 가운데 '부부간의 성관계는 신성한 것이다' '성관계는 결혼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성관계는 부부 상호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등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성생활을 위하여 성관계에 도움이 되는 성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성생활을 위하여 비아그라와 같은 성치료제를 먹을 수 있다', '성생활을 위하여 성관계에 도움이 되는 성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들은 성에 대한 도덕적이고 관념적인 부분이었던 반면,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들은 성 행위 자체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성에 대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성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성이라는 것을 실생활에 구체화시키거나 성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수용하는 데에

는 소극적인 우리사회의 성 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기혼여성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여성의 연령, 남편의 연령, 결혼기간, 자녀수, 경제수준, 월경유무, 성정보 획득유무였다. 여성의 연령이 20대이고 배우자의 연령이 30대, 결혼기간이 5년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월경을 하고 있는 경우, 성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 성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경우 성태도가 기성세대에 비하여 보다 개방화됨에 따라 연령이 성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성생활 만족에 대한 문항 가운데 '남편과의 성교시 부부간의 친밀감을 느낀다', '남편은 나의 성적 요구를 들어준다'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또는 대상자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성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하였던 Bell 과 Bell(1972), Hunt(1974), Hite(1976), Putton(1985)의 연구결과나 여성의 성이란 수동적이기보다는 성적 요구의 적극성에 더불어 성적요구를 들어주려는 배우자의 노력이 수반되어질 때 여성의 성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 장순복(199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성생활 만족도를 단지 성교빈도나 오르가슴과 같은 신체적인 측면만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여성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여성의 성생활 만족을 규명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남편과의 성교시 절정감을 느낀다'에 12.3%가 '그렇지 않다', 24.1%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일반 성인여성의 15-16%가 절정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한 Hunt(1974), Gebhard(1978)의 연구결과 및 21.9%의 여성이 절정감에 대한 경험을 드물게 혹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밝힌 이홍식 등(1987)의 연구결과에 비해 절정감 장애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 경험과 실제 행위의 객관적 사실과는 뚜렷이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나타난 결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남편의 애무는 나를 흥분시킨다'라는 문항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다' 11.8%, '약간 그렇다' 20.2%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남편과의 성교시 절정감을 느낀다'라는 문항의 응답 분포와 유사하였다. 절정감을 느끼는 여성의 대다수가 애무 동안에 절정감을 느낀다는 Fisher(1973)의 주장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도 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이 애무에 대해서도 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앞으로 좀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남편과 함께 성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문항에 대해 73.3%만이 '대체로 그렇다' 내지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부부간의 감정적인 대화야말로 결혼생활에 있어 핵심적 차원(Hawkins & Ray, 1980)이라는 연구결과나 성적인 만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방적인 태도와 의사소통(장순복, 1996)이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성문제가말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과거에는 부부 각자의 역할과 관련된 대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현대 부부간에는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의사소통이 부부관계의 친밀성을 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친밀성은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야말로 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볼 때 여성의 성만족은 단순히 신체적인 의미 이상의 정서, 심리, 사회 환경적 상태를 포함하여 총체적 접근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여성의 다양한 역할과 생의 주기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여성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장순복, 1997). 성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여성의 연령, 배우자의 연령, 경제수준, 월경유무이었다. 여성의 연령에 따른 성생활 만족은 연령이 낮을수록 성생활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대에 비하여 30대 여성들의 성생활 만족이 높았고 결혼기간에 따른 성생활 만족 또한 결혼한지 5년이하인 경우가 결혼기간이 6-10년, 11-15년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경우 3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약 90% 정도가 성적 절정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Kinsey 등(1948, 1953)의 연구결과나 여성의 경우 35-50세 사이가 성욕구가 가장 최고에 달한다는 Money(198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성만족도가 높았던 장순복(1997)의 연구결과나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또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성적 적응이 잘 이뤄졌다는 오명숙(1979)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순복 등(1997)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

수록 성생활 만족이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대졸 여성들에 비하여 성생활 만족이 높아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경제수준에 따른 성생활 만족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중상이나 중류층인 경우 하류층보다 만족감이 더 높다고 보고한 Rainwater(1966), Garde와 Lunde(1984), 장순복 등(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었고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우리사회가 과거에 비해 성에 관한 지식을 좀더 신속하고 다양하게 접하게 되면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차츰 무너지고 그 결과 여성의 성을 단지 순결과 직결시키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성 자체를 인간이 갖고 있는 존귀한 가치의 일부로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유연하고 개방적인 성태도로 인하여 과거 성욕을 단지 인간의 생리적 욕구로서 보던 차원에서 벗어나 성을 삶의 한 부분인 성생활로서 인식하게 되면서 보다 나은 성적 만족을 추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실태를 조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의 차이와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성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2000년 3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는 500명의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지를 배부한 뒤 우편으로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228부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지식 점수는 20점 만점에 13.76점, 표준편차 3.01이었고 성태도 점수는 88점 만점에 평균 57.28점, 표준편차 9.65였으며 대상자들의 성생활 만족 점수는 48점 만점에 33.15점, 표준편차 6.54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은 자녀가 1-2명인 경우, 여성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배우자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여성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월경을 하는 여성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성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는 여성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배우자의 연령이 30대인 경우, 결혼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여성의 종교가 없는 경우,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월경을 하는 경우, 성정보를 획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 성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은 여성의 연령이 30대인 경우, 남편의 연령이 40대인 경우,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월경을 하는 경우, 성정보를 획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성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성지식이 많을수록 성태도는 개방적이었으며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생활 만족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구자성 (1997). 자궁적출술을 한 여성의 성지식과 수술후 성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남, 장순복, 강희선 (1997). 성만족 도구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7(4) : 753-764.
- 김원희 (1995). 대한의학협회지, 38(2) : 184-193.
- 문혜숙 (1993). 부부 적응과 성적 적응에 따른 부부 관계 유형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홍세 (1989). 사랑, 성의 정신역동. 한국임상성학회지, 1(1): 23-30.
- 서현숙 (1992). 기혼여성의 성 통제에 관한 사례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희란 (1993). 임신부인의 성 생활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명숙 (1979). 결혼적응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1984). 신가족 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윤가현 (1993). 성 심리학. 서울 : 성원사.
- 이근후 (1997). 조선일보.
- 이홍식 (1986). 성치료. 남성과학, 4 : 31-37.
- 이홍식, 김진학, 유계준, 이호영 (1987). 기혼 남녀의 성기능장애 빈도. 대학의학협회지, 30(9) : 1017-1022.
- 익나스, 렐 (1991). 사랑의 심리학. 제석봉 역. 서울 : 분도 출판사.
- 장순복 (1995). 자궁적출술을 받은 부인의 수술 전후 성 만족 및 배우자지지의 변화. 대한간호학회지, 25(1) : 173-183.
- 장순복 (1996). 기혼여성의 성적 자율성. 간호학탐구, 5(1) : 71-88.
- 장순복 (1998). 기혼여성의 성만족. 대한간호학회지, 28 : (1) : 201-209.
- 정동철 (1985). 한국에서의 성치료와 그 문제점. 정신건강연구, 3 : 71-88.
- Allgeier, A. R. & Allgeier, E. R. (1988). Sexual interaction, Boston : Lexington, M.A.
- Bell, R. B. & Bell P. L. (1972).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Medic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6 : 136-144.
- Carroll, J. L., Volk, K. D., Hyde, J. S. (1985).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 in motives for engaging sexual intercours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4(2) : 131.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 Cole, T. (1975). Sexuality and physical disabilit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4).
- Derogatis, R. L. & Melisaratos, N. (1979). The DSFI :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functioning,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5(3).
- Derogatis, L. R. (1980). Psychological assessment of psychosexual functioning,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1).
- Duvall, M. E.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5th ed.). Philadelphia : J.B. Lippincott Company.
- Ebersole, P. & Hess, P. (1994). Toward Healthy Aging, Human Needs and Nursing Response : Mosby Co.
- Fisher, S. (1973). The female orgasm, New York : Basic Books.
- Frank, D. L., Downard, E., Lang, A. R. (1986). Androgyny, sexuality and women.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Mental Health Service, 24(7) : 10-17.
- Frankl, V. E. (1978). The unheard cry for meaning : Psychotherapy and Humanism,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 Garde, K. & Lunde, I. (1984). Influence of social status on female sexual behavior, a random sample study of 40-year-old Danish women, Scand. Journal of Primary Health Care, 2(1) : 2-3.
- Gebhard, P. & Johnson, A. B. (1979). The Kinsey Data : Marginal Tabulations of the 1938-1963 Interviews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Sex Research, Philadelphia : Saunders.
- Gordon, S., Craig, W. S. (1986). Personal issues in human sexuality, Boston : Allyn & Bacon.
- Hallstrom, T. (1977). Sexuality in the climacteric, Clinical Obstetrics and Gynecology, 4 : 227-239.
- Hawkins, J. L. & Ray, D. W. (1980). Spous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MA. August.
- Hite, __ (1976). The Hite Report,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 Hunt, M. (1974). Sexual behavior in the 1970s, Chicago : Playboy Press.
- Kaplan, H. S. (1974). The New Sex Therapy.

- New York, Brunner/Mazel.
- Kinsey, A. C., Pomeroy, W. B., Martin, C. E. (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 Saunders, 639-641.
- Landis, P. H. (1975). *Making the most of marriage*, New Jersey : Prentice-Hall.
- Levine, S. B. (1976). *Marital Sexual Dysfunction : Introductory Concepts*, *Ann Intern Med*, 83 : 448-453.
- Maslow, A. (1954). *Motivation &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Bros.
- Master, W. H., Johnson V. E., Kolodny, R. C. (1985). *Human Sexuality*(2nd ed), Boston : Little Brown.
- McCann, J. T. & Biagglo, M. K. (1989). Sexual satisfaction in marriage as a function of life meaning,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8(1) : 59-72.
- McCarthy, B. W. (1987). Developing positive intimacy cognition in male with a history of nonintimate experience,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3(4).
- McKay, A. E. & Gorden, P. (1992). *Sexualities*, Family Planning Association, London.
- Mecloski, J. C. (1976). How to make the most of body image therapy, *Nursing*, 76 : 68-72.
- Money, J. (1981). The development of sexuality and eroticism in humankind, *Quart. Rev. Biol.*
- Otto, H. A. (1971). *The New Sexuality* : Palo Alto, Cal. : Science & Behavior Books.
- Peterson, C. D., Baucom, D. H., Elliot, M. J., Farr, P. A.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and marital adjustment, *Sex Role* 21, 775-787.
- Putton, D. & Waring, E. M. (1985). Sex and marital intimacy,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1(3) : 176-184.
- Rainwater, L. (1966). Some aspects of lower class sexual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22 : 96-107.
- Rice, A. E. (1984). *Sexual interactions*, D.C Health and Company.
- Rubin, I. (1965). *Sexual life after sixty*, New York : Basic books Inc.
- Stephens, G. J. (1970). Mind-body continuum in human sexualit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0(7) : 1468-1471.
- Suthrust, J. R. (1979). Sexual dysfunction and urinary incontinence, *British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86 : 387-388.
- Sutterley, D. C. & Donellys, G. F. (1973). *Perspectives in Human development*, Philadelphia : Lippincott.
- Thomas, B. (1989). Asexual patients, 85(33) : 49-51.
- Udeenberg, N. (1974). Psychological aspect of sexual inadequacy in wom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8 : 33-47.
- Weeks, J. (1985). *Sexuality and its Discontents : Meaning, Myths and Modern Sexualities*, Routledge, Kegan and Paul, London.
- Yates, A. (1987). And baby makes three, 83(32) : 31-33.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88). Unabridged Phillipines copyright : by Merria-Webster Inc.
- White, S. E. & Remay, K. (1982). Sexuality and Pregnancy, a review,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1(5) : 429-444.
- Zawid, C. S. (1994). *Sexual health : A nurse's guide*, Delmar Publisher Inc.

ABSTRACT

Knowledge of Sex, Attitude toward Sex, and Sexual Satisfaction in married Women

In Sook, Lee(Department of Nursing, Keukdong College)
Jung-Soon, Moon(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knowledge of sex, attitude toward sex, sexual satisfaction, the differences of these variabl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correlation of these variables in married wome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5 to May 20, 2000 by using a mailed questionnaire. The number of subjects were 228 married women in the area of Seoul, Kyunggi-Do and Chungchung-Do.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67 items including item concerning general characteristics, knowledge of sex, attitude toward sex, and sexual satisfa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mean scor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knowledge of sex was 13.76 ± 3.01 with the range from 5 to 20. The mean scor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attitude toward sex was 57.28 ± 9.65 with the range from 31 to 85 score. The mean scor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sexual satisfaction was 33.15 ± 6.54 with the range from 17 to 48 score
2. The variables influencing on knowledge of sex were children number, women's education level, husband's education level, women's job, economic level, and menstruation status.
3. The variable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the sex were women's age, husband's age, marriage term, children number, women's religion, economic level, menstruation status, and information acquirement about sex .
4. The variables influencing sexual satisfaction were women's age, husband's age, economic level, menstruation status, and information acquirement about sex.
5. Regarding relationship among the knowledge of sex, the attitude toward sex and the sexual satisfaction, those respondents who had more knowledge of sex had more open attitude toward sex and those respondents who had more open attitude toward sex had higher sexual satisfaction.